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남도국악제 '최우수상' 수상

한국국악협회 진도군지부가 최근 장성군에서 열린 제44회 남도국악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도군지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 특구와 소리의 고장에 걸맞게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개인 부문은 ▲고수 부문 일반부 이임숙(대상), 박동식(우수상) ▲판소리 부문 조진옥(대상) ▲장구 부문 박연희(개인상)씨가 수상했다.

또 단체 부문은 ▲무용 부문 김해숙씨와 회원 7명(대상) ▲남도민요 부문 박영애 씨와 회원 4명(최우수상) ▲농악 부문 김남용 씨와 회원 46명(장려상)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전남도의 국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상 수상자로 김오현씨가 선정돼 진도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소리,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남도국악제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 정원페스티벌 10월 말까지 연장

완도군은 지난달 31일 '2023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당초 5월 말까지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에 따라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완도에서 개최된 세 번째 전남 정원페스티벌은 국내 처음으로 해변 부지에서 열린다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다.

완도군은 기획 단계부터 바다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콘셉트에 초점을 맞추고 바다와 관련된 소재를 정원에 반영했다.

완도 특산물을 난대 숲 정원에서 즐기는 대표 정원(가든 레스토랑)과 바다를 조망하는 작가 정원(조망 정원), 해수욕장 구명환에서 모터보를 판 참여 정원(튜브 가든), 완도 읍·면을 상징하는 섬자리 정원(보트 가든) 등 5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으로 완도만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완도군은 정원페스티벌 연장에 맞춰 학단과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하고 여름꽃을 심는 등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양곡창고가 실내야구연습장으로..." 해남, 청년창업 지원 눈길

유휴공간 리모델링... 원예체험장·카페도 조성

청년 창업가 도전의 기회 제공·미관 개선 도움

시골의 비어있던 양곡창고가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변신하고, 한쪽에는 청년들의 원예체험장과 카페도 조성됐다.

지난달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삼 산면 목신마을의 옥천농협 삼산지소 양곡창고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해남군은 면단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

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실시, 삼 산면에 위치한 양곡창고 2동을 실내 야 구연습장과 원예체험장 등으로 조성 했다.

이번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은 유 휴공간인 농협의 옥천농협 2개동을 리모델링해 실내야구연습장과 원 예체험장, 카페 등으로 조성했다.

양곡창고 2개소 중 330㎡은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만들었다. 이 곳에는

피칭머신이 있어 개인 타격, 송구훈련이 가능하다. 사회인 야구단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날씨와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관 시스템도 도입해 정기적인 연습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165㎡의 공간은 헬링 원예체험장과 카페로 조성돼 치유와 헬링이 되는 다양한 원예 체험과 ESG 실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곳은 군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해 음료를 직접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두 공간은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치된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청자배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스포츠 메카' 강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강진군이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 이어 '2023 강진청자배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강진군 축구전용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로 전라남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32팀, 700여 명의 중등부 1학년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해 제2의 이강 인을 꿈꾸며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군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최적의 경기 환경 지원을 위해 현연 잔디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각 구장마다 응급차량 배치 지원 및 급수대와 응수기를 설치해 차와

커피를 제공하는 등 경기전 순수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강진월 강진군수는 "전지훈련에 이어 다시 한번 강진을 찾아주신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진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꾸준히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조기 정착 앞장

신안군·남신안농협·천일염 생산자협, 생산량 위탁 판매 업무협약



신안군·남신안농협·천일염생산자협의회(하의·신의·장산)는 지난 달 30일 신의면 복지회관에서 박우랑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권오연 부의장 및 의원, 하의·신의·장산 천일염 생산자협의회원 및 관내 천일염 유통 농협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천일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위탁 판매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탁 판매 업무협약은 남신안농협이 중간 유통상인을 거치지 않고 남부권(하의·신의·장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우리 농협이 신안에서 처음으로 위탁 판매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우랑 신안군수는 "신안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체계적인 수급 조절 및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천일염 생산자 및 농협과 적극 협력하여 10kg 포장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복정래 기자

농협을 통한 위탁 판매 형태로 유통 방식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장래 흥 남신안농협조합장은 "신안군 천일염 생산량의 48%를 차지하는 남부권(하의·신의·장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우리 농협이 신안에서 처음으로 위탁 판매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우랑 신안군수는 "신안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체계적인 수급 조절 및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천일염 생산자 및 농협과 적극 협력하여 10kg 포장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가족센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강사로 나서 다양성 공존 교육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이 강사로 나서 다양성이 공존하고,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인식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아·어린이들과의 교육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성으로 풍부해지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와 영암군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은, 일본·중국·필리핀 이해 교육과 체험을 내용으로 총 494회 진행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사전에 교육을 신청한 기관부터 찾아간다. 동시에 교육을 받을 기관 접수도 받는다.

/영암=김형우 기자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해남군)에 기부하고
해남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2023. 1. 시행)



쉬운 기부 해남군 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기대효과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해남에서 준비한 담레품을 드립니다.



기부문화 확대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